* 로마서 9-11장
  +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룸.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 는 선지자의 대표

예수님

즉 구약의 두 대표가 신약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이 변화산 에서 만났다.

예수님이 나귀타고 이스라엘을 입성하시는것은 슥9:9 에서 예언됬다.

대제사장 은 사독의 자손만이

왕은 다윗의 자손만이 될수있다.

외우기 => 삼하7:12-13

**성경의 변증(변론)**

1. 외적 증거
   1. 신구약: 1600년간 동안 쓰였고 40명의 저자에 의해 쓰였고 그들의 직업이 왕, 장관, 목동, 제사장, 학자, 의사, 어부 등등 다양함 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과 메세지가 통일되어 있고 일관성이 확연하다.
   2. 예언의 성취
      1. 다른 종교의 성전중에 예언이 있고 또 역사속에 성취된것이 증것이 없다. 불교경전에는 예언이 없고 다 철학뿐이고 코란도 예언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셨다 뿐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고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만 제외하고는 모든것이 성취되었다.
      2. 사41:21-23, 사44:6-7
2. 내적 증거
   1. 딤후3:16-17
   2. 벧후1:20-21
   3. 계1:10-11
   4. 구약에서 여러부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등의 직접화법으로 말씀하시는것이 3000번 이상 나온다.

* **정경화(canonization)의 기준**
* 1. 사도성
  + 12사도 혹은 그와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사도 바울, 야고보, 유다) 이 저술한 책. 아니면 그들만큼이나 인정되는 사람들(마가(베드로 의 비서 라고도 함) 와 누가(사도 바울의 비서 라고도 함)) 이 저술한 책.
* 2. 영감성
  + 기록된 책에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감에 있어야 함. 즉 그 말은 그 당시에 에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고 인정을 받은 책들.
* 3. 보편성
  + 성경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만일 어느 책이 예수님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반 이방인 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복음서나 성경책들에 나온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보편성에서 걸린다. 즉 성경전체의 보편적인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또한 너무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일(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일) 만 담고있는 책도 보편성에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모든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4. 하나님의 섭리 (4번째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
  + 사도바울이 쓴 편지나 책이 많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도 보면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가 최소한 하나 더 있는것으로 나온다(고린도전전서 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왜 그많은 사도바울의 편지들중 13개 서신만 남겨져서 성경이 되었고 다른 편지들은 성경으로 보존이 되지 않았나?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 라고 한다.